

# 전주시 남북 약속·우정 담은 전시회 개최

### 12월 19일까지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약속' 진행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의를 담은 미술·사진 전시회가 전주에서 펼쳐진다.

전주시와 전국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9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에서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약속' 전시회의 개막식을 가졌다.

다음 달 19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 약속과 우정을 담아 마련된 것으로, 수원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이어 3번째로 진행된다.

전시회는 △백두산과 한라산의 만남 △약속 아카이브 △우정 등 3개 섹션으로 구성돼 북측 작가 3명을 포함한 9명의 예술가가 참여한 2~5m 크기 회화 13점과 설치 미술 품 1점, 미디어 작품 1점, 남북 정상 간 주고받은 선물 및 선언문 등의 아카이브 자료가 선보이게 된다.



전주시와 전국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9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에서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약속' 전시회의 개막식을 가졌다.

특히 백두산과 천지를 그려낸 강훈영, 정현일, 박동걸 평양미술대 교수의 작품 10선을 확인할 수 있는 '백두산과 한라산의 만남' 섹션의

경우 북측의 백두산과 남측의 한라산 작품을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어 관람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윤상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시간대 관람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제 이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회 개최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간 합의한 공동선언을 실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에 남북 간 화해와 단합, 우정 등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람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보여준 남북의 약속과 우정은 남북의 정치적·군사적 경직성을 해소해 남북이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전주시가 남북교류와 협력의 견인차가 되도록 힘껏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완산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는 학생들.

## 실내 공공 체육시설 '방역 패스' 도입

### 전주시설공단, 15일부터 접종 완료 증명서·PCR 음성 확인서 필참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15일부터 실내 공공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백신 패스,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정상 운영에 돌입했다.

단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방역 패스 적용 대상으로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48시간 이내)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용권 환불·연장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오는 14일까지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15일부터는 방역 패스 위반 사실 적발 시 이용자와 관리·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화산체육관과 게이트볼전용

구장, 실내 인라인장, 전주수영장, 덕진배드민턴장,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빙상경기장, 완산·덕진수영장 등 총 11개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화산체육관은 지난달 31일까지 백신접종센터로 운영돼 환경개선 공사 후 내년 1월 중 개장할 예정이다. 지하 체육시설은 선별진료소로 인해 당분간 운영하지 않는다.

인라인장도 시설 개선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22일 개장한다.

수영장은 15일부터 월정기권 운영을 개시한다. 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 맞춰 1개 반 12명에 한해 강습 수강 신청을 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방역 패스는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단계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전주시 덕진구, 횡단보도 2개소에 LED 바닥신호등 설치

## 전주형 통합돌봄 독자모형 완성 나선다

전주시가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스몸비족'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한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장병호)는 다음 달까지 총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해 차량 통행량과 보행자가 많은 백제대로 조달청 앞 횡단보도 2개소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LED를 설치한 뒤 횡단보도 신호등과 연동해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변하면 바닥신호등도 초록색으로 변하게 만들어 보행자들이 바닥만 보고도 신호를 편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시는 이 같은 바닥신호등이 설치되면 보행자들의 보행 신호 인지력이 향상돼 야간이나 우천 시 전방주시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보행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에 차량 접근을 소리로 안내할 수 있는 교통 인공지능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김윤상기자

### 제2기 전주시 통합돌봄 민·관 협의체 발대식 개최... 43개 기관 대표들 참여

전주시는 9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융합형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2기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9년 제1기 민·관 협의체에 이어 두 번째 꾸려진 이번 민·관 협의체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된 융합형 통합돌봄 사업 등 전주형 통합돌봄 사업의 독자모형을 완성하기 위한 취지로 재출발했다.

민·관 협의체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변재관 통합돌봄 총괄지문관을 비롯해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10개 복지·돌봄 분야 △전주시의사회 등 11개 보건·의료 분야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4개 장애·정신 분야 △HJ전북지역본부와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등 6개 학계·주거·사회연대 분야 △통합돌봄 자문위원 등 43개 기관 대표들이 포함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분기별 1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사업 추진방향 설정, 민·관



협력 강화 방안 도출 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전주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로 지역재생·통합돌봄·사회적 경제의 연계 조정 및 고도화를 통한 전주형 통합돌봄 독자모형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노화,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가 수 있도록 방문형 의료, 요양, 일상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 △통합돌봄 서포터즈(노인일자리) △독사 예방 안심앱 서비스 △스마트 돌봄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자연생태관, 탄소중립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

전주시가 탄소중립도시 전주를 상징하는 대표건물로 재탄생할 전주자연생태관을 어떻게 채울지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전주자연생태관은 오는 19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태관 내부 콘텐츠 구성·운영 방안 등을 수립하기 위한 탄소중립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달 환경부의 '공공건물 탄소중립 모델 발굴 사업' 대상지로 전주자연생태관이 선정됨에 따라 전주자연생태관을 탄소중립 교육과 생태체험이 가능한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

공모내용은 생태·미래에너지 체험관, 탄소중립 홍보관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내부 공간 콘텐츠 및 세부 운영방안 등으로,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제안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적합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총 20여 건을 채택해 소정의 상금을 증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전주자연생태관을 지역의 탄소중립 거점모델로 재구성하는 데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전주자연생태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전주자연생태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탄소중립 거점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생태 및 탄소중립 교육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자연생태관(완산구 바람쇠는 길 21)은 현재 수중생물·곤충·파충류 등 전시와 토요 생태교실 등 자연생태 체험 프로그램, 2060 탄소중립 시민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